

분리수거실시에 따른 재활용품 회수방안



박 창 수/ 한국자원재생공사 자원2과장



쓰레기 발생과 처리현황은

쓰레기는 소비생활의 부산물이다.

그러므로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될수록 쓰레기의 양도 점차 많아지게 마련인 것이다.

더구나 인스턴트식품, 청량음료등 각종 1회용품의 사용이 날로 늘어만가고 제품의 부피에 몇배나 되는 과대포장, 아낄줄 모르는 낭비의식이 쓰레기의 범람에 더욱 더 부채질하는 것이다.

'89년 한해동안 전국에서 쏟아져나온 생활쓰레기는 1일 7만8천톤으로 이는 지난 '86년도 발생량 6만여톤에 비하여 약 30%나 증가된 양이다.

이와같이 배출되는 쓰레기는 93.9%가 매립되고 있는 실정인데 매립지 면적만도 연간 약250여만평이 소요되고 있으니 좁은 국토를 이렇게 쓰레기더미화 하는것은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또한, 전국 각처에서 사용되고 매립지의 대부분이 사용년한이 짧은 노천투기식 군소매립지로 악취, 먼지, 비산등에 의한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각종 침출수가 바닥으로 스며들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서서히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㉔ 쓰레기는 액 분리수거 해야하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시책은 크게 셋으로 나누는데 첫째는 발생원에서의 원천적 감소화. 둘째는 재생가능 쓰레기의 자원화. 셋째는 안전처리이다.

쓰레기의 감소를 위하여는 먼저 기업에서 가능한 폐기물이 소량발생하는 생산공정을 채택하고 제품의 파대포장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도 알뜰한 가계운영과 근검절약의 생활화로 음식찌꺼기, 학용품, 장난감등 소득증가에 따라 부쩍 늘어만가는 쓰레기를 줄이는데 일조를 해야겠다.

요즘 주부단체에서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운동”도 쓰레기 감량화와 같은 맥락을 이루는 것이라 하겠다.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중 재활용품이라 하는것은 재생이 가능한 폐품류를 총칭하는 것으로 크게 종이류, 고철, 캔, 빈병, 비닐류로 구분한다.

이와 같은 재활용품은 쓰레기 발생량의 약 22%에 해당하는 596만여톤이 되는데 이중 295만톤 정도가 고물상이나 환경미화원등에 의하여 회수가 되고 나머지 301만톤은 매립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그런데 도시에 지정된 매립장이나 한적한 변두리 하천변에 잔뜩 쌓인 쓰레기더미를 보노라면 재활용품의 통계가 너무 적게 산출된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휘날리는 종이, 아무렇게나 덩구는병, 캔류등 육안으로 보기에는 반이상이 그런 종류들이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수입하는 폐품값만도 연간 7734억원이나 든다는데.....

이렇게 많이 묻혀버리는 재생가능한 자원들, 우리모두가 성의를 가지고 발생원에서 부터 분리회수해야만 하지 않을까.

㉕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는가

분리수거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재활용품, 연탄재, 기타쓰레기로 3종 분류하고 기존 청소체계와 우리공사에서 효율적으로 역할 분담하며 수집 처리하는것을 근간으로 하는데, 특

히 재활용품에 대하여 국민과 우리공사가 상호 협력해서 보다 많이, 보다 능률적으로, 보다 경제적으로 회수하여 자원화 하는것이 주요한 과제이다.

현재 재활용품의 종류별 발생량및 회수량은 다음과 같다.

	발생량 (천톤/년)	회수량 (천톤/년)	회수율(%)
종 이	3.812	1.619	42.5
고 철	18.305	6.254	34.2
공 병	2.048	1.887	92
페비닐	860	301	35

㉖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어떤 기관인가

우리 공사는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거 페비닐의 수집처리및 재활용을 목적으로 지난 80년 9월 11일 설립된 환경처 산하단체로서 주로 농촌지역의 영농페비닐및 농약빈병을 수집 처리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하여 전국에 60개 사업소를 두고 수집차량 22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750여명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지난 88년도에 하이덴 페비닐 재생공장을 건설 운영하게 됨으로써 비닐류 재생처리에 획기적 신기술을 개척 하기도 했다.

농촌에서는 꽤나 유명한 우리 공사에서는 전국 35,487개 면단위 이하 마을에 일차별로 페비닐, 농약빈병 수집차량을 고정 배치하여 주민들에게 적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회수함으로써 농촌 환경보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있다.

이제 그간의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수집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㉗ 재활용품 수집사업 방법은

우리 공사에서는 재활용품을 수집처리하는 방법을 두가지로 나눈다.

첫째는 수집차량을 대폭 보강하여 정기 순회를 통한 유상매입 방법으로 도시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차량순회 일정을 새로히 편성 운영하

고 농촌지역에서는 현재의 수집체계를 그대로 활용 하되 고지·고철, 병등 수집품목의 확대를 기하는 것이다.

둘째는 공사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시·군·구 청소차량이 운송해오는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자원화하는 것으로 이 작업은 신설되는 재활용사업소에서 주로 담당하게 될 것이다.

재활용품의 회수체계가 정착되는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보면

1단계는 지역별로 수집차량의 고정 배치일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주민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모아서 판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물론, 배치일정, 재활용품 보관요령 등에 대한 홍보의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

우선 이렇게만 하면 정부시책방향이냐 국민의식을 감안했을 때 재활용품 수집 가정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2단계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가정들을 하나의 단체로 구성토록 권장하고 판매대금은 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활용품 수집활동에 전 주민이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고 판매대금도 자연스럽게 대표1인이 관리하게 될 것이므로 그사람을 중심으로 주민 각자가 모은 재활용품을 수시로 지정장소에 집결하는 체계가 유지 될 것이다.

3단계는 지정장소에 재활용품 종류별 보관용기를 배치하여 주민들이 수시로 투입한 재활용품이 일정량이 되면 보관용기에 알맞게 제작된 장비에 의하여 상차 및 운송하여 곧 바로 재생업체에 공급 되도록 할 계획이다.

재활용사업소의 역할은

요즘 TV나 라디오를 통해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수집방법을 성토했던 주부들의 목소리를 자주 듣는다. 재활용품으로 분류하여 지정된 통에 버렸는데도 청소차가 쓰레기와 혼합하여 싣고 곧바로 매립장으로 가버린다는 그런 얘기가. 그래서 분리수거는 하나 마나라는 등..... 문제는 가정으로부터 발

생된 재활용품이 재생자원으로 쓰여지려면 종이, 철, 병등으로 1차 분류는 물론이고 종이인 경우에는 고급지와 저급지, 병중에서도 갈색병, 청색병, 무색병등으로 다시 구분되어야 재생업체에서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데 그러한 장소, 시설, 조직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않기 때문에 아까운 자원이 매립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선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17개소의 재활용사업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이다.

이사업소에서는 주민들이 애써 분리한 재활용품을 재생원료화 하기 위하여 컨베이어라인에 의한 종류별 분류작업과 압축기, 파쇄기등의 장비를 이용한 비축능력까지 갖추게 되어 1일 약 50톤 이상의 재생가능 자원을 생산 함으로써 폐자원의 회수를 제고와 안정적 유통에 기여 할 것이다.

<재활용품분리보관에 대한 국민협조사항>

종류별	세 부 품 목	분리 보관 요령
종이류	•신문, 헌책, 박스, 우유팩·쥬스팩 등 각종 종이류	•신문, 헌책이 많을 때에는 끈으로 묶어서 •박스는 잘 접어서 •우유팩, 쥬스팩등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후 찌그러서
알미늄캔	•맥주캔, 음료수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후 한번 찌그러서
철 캔	•쥬스캔, 음료수캔, 통조림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후
빈 병	•사이다병, 소주병, 맥주병, 음료수병, 약병, 화장품병	•내용물을 비운후 깨어 지지않게 가능하면 청색, 갈색, 무색 등으로 색깔 구분하여
비닐류	•식료품통, 삼푸통, 요구르트병, 쌀포대, 잡판, 바가지등	•각종통, 병은 내용물을 비운후 •포대류는 접어서